



가독

## 두려움

김상훈 안드레아  
제주교구  
나오미센터 사무국장

나는 에니어그램 6번 유형이다. 책임감이 강하고 순종적인, 한마디로 조직이나 사람들에게 충실한 유형이다. 그런 장점 덕분인지 육십이 넘은 지금까지 좋은 일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늘 걱정이 많고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하며 두려움에 싸여 살아가야 하는 단점이 있다. 호숫가에서 물을 마시며 작은 돌맹이 구르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 도망갈 준비를 하는 사슴처럼 말이다.

지난 3월 초 울산광역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아픈간 출신 아이들의 등교를 막아섰다. 이 아이들은 국가가 군사작전을 벌여가며 전쟁터에서 구해내 데리고 왔고 6개월간 특별한 정착교육까지 받은 ‘준비된’ 이주민 가정 자녀이며, 아빠들이 현대중공업에 취업해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집안의 자녀로서, 사회적으로 우려할 점이 없는데도 등교를 거부당한 것을 보면, 그 동네에는 나와 같은 6번 유형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양궁선수인 나의 사촌에 따르면 두려움을 없앨 담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으로 밤에 공동묘지를 방문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한다. 가장 무서운 것을 체험함으로써 웬만한 긴장이나 두려움을 시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또한 두려움의 실체를 눈으로 보게 해주어, 그것이 실제적인 공포가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공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경험일 것이다.

2018년 국민청원에서 72만명이 제주예멘난민수용을 반대한 것, 그리고 올해 울산 학부모들의 피켓시위 모두 이슬람 문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세계 인구 4분의 1이 이슬람 사람이라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5년째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 1,050명의 예멘난민, 그리고 그보다 앞선 2012년 입국한 시리아 난민 1,200명이 우리 곁에서 10년째 살고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을 씻어버릴 만큼 경험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에니어그램 전문가들은 나에게 건강한 삶의 비결을 9번 유형 사람들에게서 찾으라고 한다. 9번 유형은 모든 사람을 잘 수용하는 평화주의자이다. 즉, 둔한 사람이 되라는 것인데 쉽지 않다. 공동체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그들이 빼앗지 않을까 파괴하지 않을까 머릿속에 두려움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 두려움에 눌러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기보다는 우리 모두 그들을 수용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천천히 평가하고 반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



✝ 이달의 기도 지향 : 이주민과 난민과 함께 하느님 백성의 보편성(catholicity)을 더욱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 깻잎 한 장의 무게

유상우 광현아우구스티노 신부 우정성당 |

얼마 전 식당에서 불고기 백반을 시켜 먹다가 왼쪽에 있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깻잎은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사실 이전 낫설지 않은 문구이기도 합니다. 고깃집에 가면 추가로 먹는 쌈이 유료인 경우도 있지요. 짜장면 한 그릇도 배달되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고깃집의 상추와 깻잎을 추가로 시키기에도 눈치 보이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오기 전 머물렀던 밀양에서는 깻잎 농사를 짓는 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감물리의 이장님도 깻잎 농사를 지으셨지요. 이장님뿐만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학습관에 와서 돈 되려면 이런 거(쌀, 배추, 무, 콩 등의 농작물) 하지 말고 깻잎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깻잎을 키우기 위해 비닐하우스의 전등이 하루 종일 켜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깻잎을 수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어디를 둘러보아도 대량으로 깻잎 사업을 하시는 분들 농장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이주노동자들은 하루에 깻잎 1만 5천 장이 들어가는 15상자를 할당량으로 받는다

고 합니다. 근로계약은 8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 하루 일을 다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결국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초과 근무를 해야 하고 당연하게도 이 초과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깻잎 밭 옆의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에서 먹고 자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기 전, 동네에 딱 하나 있는 목욕탕에 가면 가끔 이주노동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한국말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이 있으면 자국어로 언어를 바꿉니다. 분명 좋은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마침 그 농장의 주인도 목욕탕에 왔고 주인과 일하는 사람 셋이서 “왜 월급을 한 달이 지나도 안주냐”며 싸웠던 목욕탕에서의 기억이 저에게는 남아있습니다.

교회는 이민의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며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으로 거리가 급격히 가까워진 현대 세계에서, 더 나은 삶을 찾는 이민이 점점 늘고 있다. 이민은 지구상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출신들이며, 이들의 선진국 유입은 흔히 수십 년 동안의 경제 성장으로 얻어진 질 높은 행복한 삶에 위협이 되는 것

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민은 현지의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현지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이나 영역에서 노동 수요를 채워줌으로써 일자리의 공백을 막아준다.” (간추린 사회교리 297항)

우리나라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이주노동자들이 함으로써 노동 사회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주민들의 노동과 관련된 교회의 지적도 되새겨 볼 만합니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누리도록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하려는 생각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신중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간추린 사회교리 298항)

가수 홍순관 씨가 부른 ‘쌀 한 톨의 무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들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더불어 깎아낸 한 장의 무게를 생각해봅니다. 그 안에 스민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깎아낸 장에 스며있는 것이 이주민 노동자들의 한숨과 불만이 아니길 소망해봅니다. 월급을 받지 못해 끙끙거리는 불안감이 아니길 바래봅니다. 자신들이 흘린 땀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깎아낸 한 장 속에 스며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농·어업 현장은 물론 식당과 공장, 지역사회 어느 곳곳에서나 쉽지 않게 이주민 노동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 역시 인권을 가진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난민 등의 국제적 보호와 권리 보장

이탁건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항공사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법원에서 근무하다 유엔난민기구로 이직했다. 딸이 커서 아빠가 하는 일을 물었을 때 멋쩍고 싶어서였다. 관련 판결들로 현 주소를 짚어본다.

## 전세계 1%까지 늘어난 강제이주, 돌아갈 고향과 조국이 없는 이들

유엔난민기구는 2차대전 후 유럽 난민들의 보호와 본국 귀환을 위해 생겼고 임시적이었으나 현재는 난민신청자부터 국내실형민, 무국적자, 강제 이주자까지 보호대상이 확장됐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강제 이주자는 지난해 말 기준 9천만 명에서 올해 5월 1억 명. 세계 인구의 1%, 인구수로 14번째 국가 규모까지 늘었다.**

2020년 말 기준 난민 발생 수는 시리아가 1위고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순이다.

선진국들이 대다수를 받아들이고 한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발생지역 인근 국가들이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다.

기구는 우크라이나 등 특정 국가로의 귀환 자제 입장문을 최근 2년간 8개 이상 발표했다. 강제 이주가 늘기에 기구가 성장하고 있는 현실로 한국에서 보호와 옹호활동을 주로 한다.

난민은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거나 보호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국제사회는 난민협약에서 돌아갈 고향과 조국이 없어 보호국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이들을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고 정했다.

**부산법원도 “보편적 가치를 침해당했거나 불가항력적인 재앙으로 보편적 가치를 상실한 피해자로, 따뜻한 시선으로 보호할 필요가 크다”며 난민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끌어냈다.**

난민의 지위 인정은 국가가 하는데 권리부여가 아니라 확인적 행위로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신청자도 본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

## 인정률 1%, 생계 지원 7%, 재신청자는 비자도 취업도 불가

신청자 대다수는 급히 도피하느라 박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본인의 진술이 전부여서 어떻게 인정할까가 관건이다.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정황들을 종합해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지만 신청자의 진술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증거가 필요한 경우가 더 많아 인정률은 지난해 말 기준 단 1.1%다.

민주화 운동 경력이 사유였던 이집트인의 신청이 불인정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본 면접 조서 내용은 “돈을 벌러 왔다” 등 가짜였다. ‘진술 내용을 축약했다’던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였던 법원은 비슷한 조서 10건을 보고 재조사했고 법무부는 55건을 스스로 직권 취소했다. 그러나 재신청을 거쳐서도 한두 명이 인정받았을 뿐이다.

법상 신청자 일부에게 6개월의 생계지원이, 전부에게 6개월 후 취업 허가가 주어지는데 지원은 불과 7%이다. 93%는 알아서 살다가 6개월 후 취업 허가를 받아 생계를 꾸려야 한다.

그러나 박해 때문에 돌아갈 수 없어 재신청하는 이들은 문제고 30일 비자 기간이 지난 뒤 신청을 하는 재신청자 등도 체류 자격이 안 나온다. 이들에겐 비자도 취업도 보장해 주지 않고 30일 단위로 출국명령을 갱신시킨다. **불법으로 일할 수밖에 없고 단속당하면 송환 대기를 당하거나 숨어서 지내다 거리로 내몰리기도 하는데 몇천 명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신분을 갖지 못해 막대한 기본권들

외국인은 본국 영사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지만 **난민은 본국의 박해를 피해서 온 탓에 불가능하고 난민 신청을 하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공언하는 대사관도 있다.** 사회적 신분을 갖지 못하는 난민과 이주민 등을 위한 소송과 캠페인 등이 10여 년간 펼쳐졌고 현재 국회에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몽골 부부의 체류 자격 연장 관련 소송 중에 단기비자로 입국했던 자녀들의 출국명령이 내려졌다. 돌아가면 보호자가 없으니 소송 중이라도 함께 살게 해달라는 소송에 법원은 “부모가 한국에 온 뒤 9개월간 자녀들이 몽골에서 잘 지냈으니 돌아가도 잘 지낼 것”이라고 판결했다. 아동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은 것.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는 생존권 발달권 등을 정하고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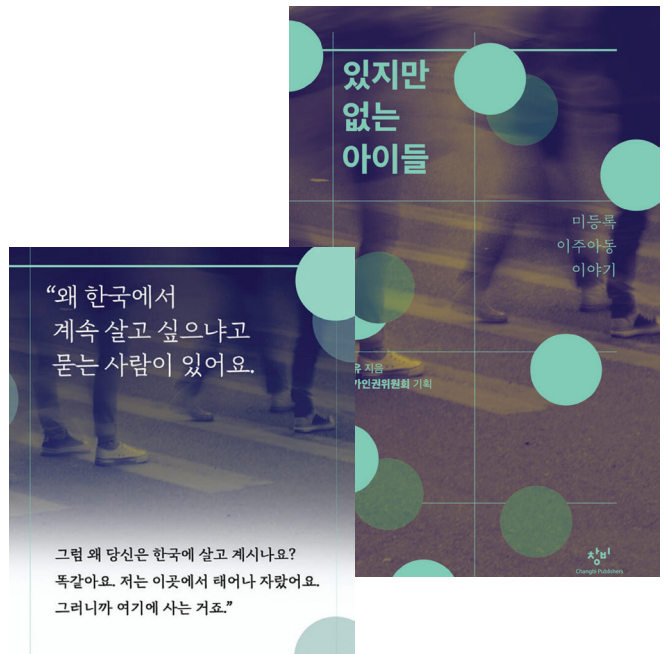
만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은 헌혈도, 봉사도, 진로 선택도 못하고 꿈도 가질 수 없다.**

### 진일보했으나 한시적인 정책들, 관심과 지원을

사업 비자로 온 아빠가 강제 퇴거당하면서 동반비자로 온 엄마와 한국 태생 5남매만 남았다. 엄마가 힘겹게 아이들을 키우고 실업고 자격증으로 취업한 둘째는 두 달 만에 단속을 당해 무비자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공교육이 끝나면서 퇴거 유예가 끝난 탓.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대한민국만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온 사람을 무작정 내쫓는 것은 문명국가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6,7년 살았거나, 공교육을 받거나 받았으면 체류 자격을 주겠다는 정책이 지난해 첫 등장했지만 한시적이라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어도 잘하고 학생회장도 하던 이란국적 중학생이 신청이 불인정돼 본국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친구들이 시위와 국민청원을 하고 가톨릭과 연대하는 등 열심히 도와 아이는 인정을 받았지만 가혹한 선택이 남아있었다. 미성년 인정자는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아빠와 함께 박해가 뻔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혼자 한국에서 살아야 했던 것. 법원은 법의 취지를 넓혀 가족결합권을 인정했고 부자는 함께 살면서 성당에 다닌다. 🌿



2022년 9월 19일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의 주제강의를 김아영 소피아 정평위원이 요약하였습니다.

## 주님, 때가 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철희 베드로 신부 영성의 집

신부 생활 5년 차 때의 일입니다. 토요일 중교 등부 주일미사를 마치고 성당 마당에서 주일학교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현듯 한 외국인이 찾아와 영어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날 저녁 함께 미사를 봉헌했던 외국인이었습니다. 짧은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그 형제님의 속사정을 듣게 되었죠.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대화의 요지는 “신부님, 혹시 이 성당에는 한글을 가르쳐 주는 반이 있나요?” 였습니다. 그분의 물음에 저의 뇌리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찌지? 어떤 답을 주어야 하나.. 만약 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한글 교실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 내 일이 많아질 게 뻔한데. 가뜰이나 바빠 죽겠는데... 게다가 한글은 누가 가르쳐 주지? 한글 교실을 만들면 운영과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건 그렇고 주임 신부님께서서는 허락해 주실까? 저의 뇌리에는 또 다른 생각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분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저분의 상황은 딱하나, 저분의 인격과 됴됨이를 모르는데, 그리고 정말 세례는 받으신 걸까? 괜한 일을 벌여서 본당 공동체에 해가 되는 건 아닐까?’

찰나의 순간 이런 고민들이 지나갔고 저는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본당에서 한글 교실을 운영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직 여건이 안 됩니다. 미사야 얼마든지 나오실 수 있지만, 한글 교실을 만들어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쉬운 눈빛과 축 처진 뒷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때 당시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때의 일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외면했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저의 이기심이었으며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이웃을 외면한 레위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형제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분을 이웃과 형제로서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방인으로 대우했습니다. 단순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내어 맡기지 못했습니다. 제 상황과 고민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과 이끄심에 온전히 의탁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이곳, 영성의 집에 이주노동자나 혹은 난민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을 반가이 맞아주겠습니다. 이방인이 아닌, 형제자매로서, 이웃으로서 다가가겠습니다. 그분들의 힘겨움과 고충과 고통을 들어주고 그분들을 위로해 주겠습니다. 나아가 그분들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주님, 때가 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



# 희망을 노래하다.

『노래로 쏘아 올린 기적』, 감독 하니 아부 아사드

전동묵 안드레아 신부 중앙성당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도 불리는 팔레스타인 가자 난민 지구에 살고 있는 소년 “아사프”가 오늘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그의 꿈은 누나와 함께 카이로의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 서는 것이지요. 하지만 악기 하나 구하기 어려운 현실과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웬 노래야?”라며 희망을 노래하는 작은 소년에게 던지는 어른들의 야유는 영화를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가슴 졸임과 절망으로 밀어 넣지요. 그럼에도 소년은 누나와 함께 꿈을 잃지 않습니다. “유명해져서 세상을 바꿀 거야.”

꿈을 키워나가던 어느 날 누나는 공연 중 쓰러집니다. 누나의 병명은 신부전증. 수술을 위해선 장기 기증자와 큰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가 살고 있는 곳은 가자 난민 지구입니다. 결국 갑작스레 들이닥친 누나의 죽음은 소년의 꿈을 완전히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세계 오디션 열풍을 몰고 온 ‘아랍 아이돌’ 예선 소식이 들리고, ‘아사프’는 누나가 자신에게 깊이 새겨준 한마디, “유명해져서 세상을 바꿀 거야.”라는 그 희망을 다시 지킵니다. 국경을 뛰어넘어 이집트로의 목숨 건 탈출을 감행한 아사프. 우여곡절 끝에 무대에 오른 그의 노래는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영화 <노래로 쏘아 올린 기적>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노래로 희망을 전해준 ‘무함마드 아사프’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난민으로 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누나에 대한

기억으로 아사프는 노래를 통해 가자지구 난민촌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위조여권을 만들고 이집트 국경을 넘어 가까스로 오디션 무대에 서게 된 아사프. 자신에게 쏟아지는 언론의 관심과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엄청난 중압감과 공포심을 이겨내고 결승까지 오르게 되었고 고향 사람들에게 희망과 웃음, 행복이라는 기적을 선물합니다.

영화 속 배경은 실제 가자지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비참한 역사’를 가진 ‘분쟁과 교파주의로 불안정한 중동’이라는 현실과 철조망으로 갇혀 있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키워나가는 어린 주인공들의 역동이 가슴 아프게 교차합니다. 누나의 죽음 뒤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던 주인공 ‘아사프’가 다시 노래를 결심하게 된 장면과 ‘아사프’의 무대를 보며 고향 사람들이 열광하는 장면은 우리에게도 주머니에 구겨진 채 남아있는 희망이 있다고 알려주는 듯합니다. 우리도 아사프처럼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희망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함께 노래하기를 청합니다. 🌿



## 그리스도인과 군대 - 테르툴리아누스

김현 안셀모 신부 해양사목




10월의 첫날은 한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 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정된 법정 기념일인 ‘국군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교회는 1968년부터 10

월 첫 주일을 ‘군인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동안 전국 각 본당에서는 군의 복음화를 위한 특별헌금을 봉헌합니다. 국방의 수호를 위해 애쓰는 군인장병을 격려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목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말이 전도되어서 그런지, 작년 10월 『매일미사』의 군인주일 관련 광고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군인주일을 홍보하기 위해 늪름한 여섯 명의 신임 군종사제들이 집총을 하고 찍은 사진을 홍보용으로 게재했기 때문입니다.

군인의 상징물이 총이라고 하더라도, 군종사제는 군인이기 이전에 사제입니다. 사제는 ‘예수님께서 남기고 가신 평화’(요한 14,27 참조)를 구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익명의 한 신부님께서서는 한국교회 사제단의 소통의 장을 통해 “신부님들이 별생각 없이 집총과 거총을 반복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라며, 문제의 사진을 『매일미사』에 게재한 군종교구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마침, 10월 4일이 바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입니다. 성인의 모범처럼 미움과 다툼,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할 사제들이 오히려 군인주일 홍보를 위해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은 주객이 전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려와 안타까움만 자아낼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호교교부이자 라틴어를 사용한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저술가인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 160경-220이후)는 『월계관』De Corona Militis을 통해, 그리스도인도 사회적 책임을 기피하지 않기 위해 군복무를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지침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문헌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군복무를 한다고 해서 죄의 면책과 순교의 면제를 약속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민간인 신분이든 군인 신분이든 그저 신앙인일 뿐입니다. 신앙은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야 할 어떠한 불가피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불가피성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군복무를 배척합니다(Omni ope explero militiam).”(테르툴리아누스, 『월계관』 11,6) 





## 이주민과 난민과 함께 미래 건설하기

“사실 땅 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도성을 찾고 있습니다”(히브 13,14).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여정’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의 참 본향,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느님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과 인류의 미래에 여전히 종말론적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서 발견됩니다.”

‘하느님 나라’ 라는 이 도성은 “하느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히브 11,10)입니다. 하느님 나라 건설 계획에는 우리의 직접적인 참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건설 작업이 그분의 계획에 더욱더 일치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회개와 현실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계획에 맞갖은 미래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누구와 함께 건설해야 할까요? 하느님 계획은 본질적으로 모든 이를 포함하며, 실존적 변방에 사는 이들을 우선시합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수많은 이주민과 난민, 실향민,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이들과 함께 건설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없다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 누구도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주민과 난민의 존재는 어려움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이의 문화적 영적 성장을 위한 엄청난 기회도 드러냅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세상이 지닌 아름다운 다양성을 알게 되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

어온다”(이사 60,5). 이사야 예언서에서 이방인의 유입은 풍요로움의 원천이 됩니다. 이주민과 난민의 노동, 젊음, 열정, 희생 의지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를 풍요롭게 합니다. 서로를 향한 개방성은 풍요로운 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 줍니다.

또한, 다른 종교들에 담긴 풍요로움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신념이 더욱 깊어지도록 도와줍니다. 가톨릭 신자인 이주민과 난민의 유입은 그들을 환대하는 공동체의 교회 생활에 활기를 북돋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다른 표현과 헌신을 함께 나누면 하느님 백성의 보편성(catholicity)을 더욱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 나라를 향한 미래를 건설하는 데에 하느님 아버지께 협력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형제자매인 이주민과 난민과 함께 합시다! 미래는 오늘 시작되며 우리 각자에게서 시작됩니다. 세상을 위한 하느님 계획이 실현될 수 있고 정의와 형제애와 평화의 하느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오늘, 미래를 건설합시다! 🌿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2022년 5월 9일

프란치스코

2022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교황 담화  
(전문)



## 정의평화위원회 활동과 소식

### + 9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약칭: 아세미)

추석연휴와 겹쳐 한 주 미뤄 봉헌한 9월 19일(19:30 가톨릭센터 소극장) 아세미에는 유엔난민기구 법무담당관 이탁건 테오도르 변호사를 초대하여 난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제결혼 이주민을 비롯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학생, 새터민, 난민 등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국가의 존폐 위기가 머지않았다는 우려 속에도 여전히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포용(수용)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느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모두가 한 형제자매입니다.



### + 민선 8기 부산시장에 중대 재해 없는 부산 만들기 요구

중대재해없는부산운동본부와 부산지역 정당은 9월 15일(10:00)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2022. 7. 1 ~ 4년간)를 시작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하여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 중대 재해 없는 부산 만들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산업재해로 5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17개 광역시도 중 6번째로 안전하지 못한 산재도시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33명이 사망, 사고와 질병은 10,028명입니다.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 +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부산 간담회

9월 20일(15:00)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와 ‘중대재해없는부산운동본부’ 간담회 및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그동안 입법활동을 해왔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중대재해 대응기구 준비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23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가 발족하였습니다. 서울(전국)과 지역의 연대의 틀을 마련하고 부산의 중대재해 대응과 예방의 실효를 위한 노력을 함께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9월 23일(14:00)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와 민변, 중대재해없는부산운동본부, 고난함께 등이 방청과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플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 등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내용이 과학적 근거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22명의 선원들이 실종됐지만, 6년이 다 되어가도록 어느 누구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침몰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정부 역시 민간의 일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1월 18일입니다.



## + 미얀마 군부, 학교 공중사격으로 어린이 6명 사망

9월 16일 미얀마 중부 사가잉주 디빠인 타운십 렫엿꼰 마을에서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미얀마 군부가 무차별 공중사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업 중이던 어린이 6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아이들이 중상을 당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공중사격 이후 지상군을 투입해 부상당한 채 쓰러져있던 학생과 교사 20여 명을 불법체포해 연행했습니다. 군부가 학교를 표적으로 삼아 벌인 만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전쟁범죄입니다. 무고한 어린이를 학살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25일 미얀마 무관부(서울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미얀마 민중과 연대하는 캠페인은 주일 오전 11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립니다. 🍂

###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8월 17일 ~ 9월 15일)

강운자 강인순 강정웅신부 고은영 권성일 김경란 김경석 김경숙 김광숙 김귀애 김선영 김인한신부 김종경 김진호신부 김흥기 나경문 류창훈신부 류형숙 맹정은 박위옥 박정학 박종민신부 배미희 법무법인민심 법무법인부산 변지혜 서경혜 손석호 송석희 신정금 심서경 심재영 아리 우무섭 유상우 신부 유한이 윤영훈 윤용웅 이미영 이봉룡 이성애 이소라 이영복 이우형 이윤호 이정기 이형규신부 장원창 전나미 전윤희 전태일 정성호신부 정원희 정종태 정호신부 조계환 조동기 조동성신부 조영심 주님의축복을 차광준신부 최우인 최재경 최혁신부 최현욱신부 하민진 하희설 허재현 황수엽 황진 익명

#### | 원고 후원 |

고은영 김진호신부 김현신부 박상범신부 박침찬신부

2022 10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전기민영화 VS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진행 시간 ● 2022년 10월 10일 (월) 저녁 7시 30분
- 진행 장소 ● 가톨릭센터 소극장
- 참여 강사 ●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문의 051.465.9508 / www.busanjustice.pbcbs.co.kr

## 정의평화위원회를 후원(자동이체 신청)해주십시오.

### 정의평화위원회 후원계좌

- 농협 301-0465-9508-21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정평위)
- 부산은행 113-2000-863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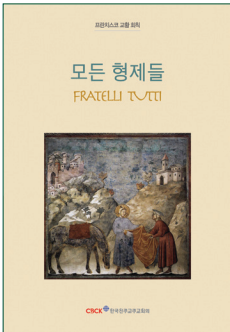
>> 보내주신 후원금은 정의평화위원회의 소중한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 후원인 가운데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된 분은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십시오. ☎ 051-465-9508

#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 길라잡이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쓰도록 영감을 준 이 형제적 사랑, 단순함(청빈, 가난), 기쁨의 성인은,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하여 새로운 이 회칙을 쓰도록 제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모든 형제들」 2항)



- 일 시 2022. 11. 9 ~ 16 (2주간 수요일) 오후 7~9시
- 장 소 가톨릭센터 3층 교육실
- 대 상 관심 있는 누구나
- 수 강 료 2만원 (정의평화위원회 후원인, 수도자 : 1만원)  
(부산은행 113-2000-8639-05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 입금 시 "이름+사회" 표기 (예: 홍길동사회)
- 교 재 회칙 『모든 형제들』 개별 구입
- 신 청 하 기 11월 3일까지 <https://bit.ly/3QXqTSD>
- 문 의 051-465-9508, busanjustice@naver.com



날짜	강좌명	강사
11월 9일(수)	평화의 회칙인 '모든 형제' 1 형제애(관계)와 인간 존엄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11월 16일(수)	평화의 회칙인 '모든 형제' 2 사회적 우애와 인간 공동체	

※ 정의평화위원회는 교황청에서 설립한 기구로서 복음을 토대로 사회교리 교육과 실천에 힘씁니다.



##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전화 051-465-9508 주소 48968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71 가톨릭센터 5층

이메일 busanjustice@naver.com 홈페이지 busanjustice.pbcbs.co.kr